

편 집 후 기

김영철 : 올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, 내년에 계속 수고하실 분들에게는 더욱 감사드립니다.

김오영 : 편집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

김용민 : 처음 해보는 편집위원으로서 별다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본인이 맡았던 특집원고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송실대 김주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.

김재경 : 나누면 가볍다는데...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참여합시다.

김종만 : 나름대로 편집회의에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, 편집을 맡으면서 기술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뜻깊은 한해를 보냈습니다.

박 민 : ‘많이 보고 많이 쓴 한해’를 위한 ‘광고’ 수주에의 도전정신을 기억하며 ... 다시 한번 정진합시다!

박원호 : 올해에는 좀더 참여하는 자세로 내실있는 기술지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는데,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참여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더 나아지겠지요.

변성원 : 처음으로 학회 기술지일을 하면서 너무도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.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.

원종욱 : 아! 여성 과학자!?

원종찬 : 학회기술지 편집일을 하면서 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고,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

이원규 : 노력하는 마음과 자세로 앞으로 계속 잘 하겠습니다.

진성호 : 한해동안 고분자과학과 기술지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황진택 : 올해 처음으로 기술지 편집일을 하면서 미숙한 점도 많았으나,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이 일한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으며, 내년에는 산업계의 Needs를 충실히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.



김영철



박 민



곽승엽



김성수



김오영



김용민



김인선



김재경



김종만



나창운



박원호



변성원



손병혁



원종욱



원종찬



이원규



진성호



황진택